

멍침지

(흔외정사 3)

I. 가난은 물리쳤지만

필자가 어느 정신병원에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 30대 초반의 부인이 징징 울며 베개를 끌어안고 “아이구 내 새끼, 아이구 내 새끼”하며 섬망(譫妄)상태로 들어왔다.

그 부인은 베개를 ‘내 아이’라고 하고 “내 아이가 지금 아프다”라며 징징 울어대는 것 외에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함께 온 남편은 초조한 얼굴로 “나 때문에 그럴다”라고 이야기했다.

병력 청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몹시 거리끼던 남편은 “내가 여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데 마누라가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잘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만 했다.

어쨌든 환자의 상태로 보아 입원 치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간단한 검사 후 병동으로 옮겨져 급속 정온(Rapid tranquilization)처치를 받았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이튿날 오후였다.

자신이 하룻밤하고도 반나절을 더 잠들어 있던 곳이 정신 병원이었음을 깨달은 환자는 이번에는 정말로 ‘서러워서’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난 후 두 사람의 인생 역정(歷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녀가 인격의 극적(劇的)인 붕괴(崩壞)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두 사람은 찢어질 듯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며 거의 고아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점이 우선 같았다. 방직공장으로, IC회로를 조립하는 하청 공장으로 전전하던 그녀는 어느 공장에서 비슷하게 불우했던 처지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둘은 서로 눈이 맞았다. 둘은 곧바로 동거생활에 들어갔는데 일이 잘 되려고 했던지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이 각별하고 또 아끼고 저축을 하는 바람에 돈을 좀 모으게 되었으며, 얼마 안 있다가는 “우리도 우리 사업을 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회사에 사표를 던진 두 사람은 여러 가지 행상을 하면서도 금실이 좋았다. 소문에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갖다 팔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 새벽 기차 타고 서울 가서 물건 해 오는 길거리의 '누워 패션'에 손을 댔다. 장사가 잘 되었다.

그때 즈음 헐값에 사 놓은 변두리 땅이 얼마 안 있자 대학이 들어서면서 장사하기 좋은 땅으로 변했다. 그들은 웬만큼 돈을 벌었으니 이제 좀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 보자며 자신의 땅에 가건물을 짓고 분식집을 냈다. 그 동안 결혼식은 못 했지만 혼인신고도 하고 귀여운 딸아이도 태어났다.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돈만 있으면 개도 멍침지라는데, 형편이 펴기 시작을 하니 남편이 술술 친구들과 밤중에 술을 마시러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럴 즈음 남편에게는 묘령의 여자로부터 전화가 오기도 하였다. 급기야 남편은 외박을 시작했다.

부인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도 하고 “얼른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한다.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술집에 있는 그 아이가 불쌍하다”며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탄식을 해서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다 남편이 마음이 약하고 모질지를 못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내성적인 성격의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지 않겠는가”라고 막연히 믿었다.

II. 멍침지의 과욕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것이 아내에게 노출되었다면 당연히 큰 분란이 났을 법도 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일찍이 풍비박산 나 버린 집안에서 자라나 '가족이 깨어지는 문제'에 대해 아주 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왔던 부인은 속으로 애간장이 타면서도 그것을 어찌하지 못 하고 있었다. 남편의 심경을 자극함으로써 더 큰 화를 자초하거나 외박의 당위성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교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고나 할까.

또 한편으로는 그 부인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데다 문제의 해결점을 본인 스스로에서 찾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느끼는 감정은 부인의 입장과는 전혀 달랐다. 그도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 죄책감도 갖고 있었으며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혼외정사 문제가 집안에서 공공연하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자 그의 생각과

행동은 엉뚱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도 ‘그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때로는 성감의 차이를 말로 묘사하기도 하고, “이럴 때 그 아이는 어떤 소리를 내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이 대목에는 이런 말을 해 달라”라든가 “이런 소리를 내 달라”는 식으로 주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아내와 관계를 하면서도 그 술집 여자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였다. 그는 이런 것을 매우 은밀하게 즐기고 또 흡족해 하는 것 같았다. 사실상 남편은 성적인 가학증(sexual sadism)을 보이고 있었고, 그것은 폭력만이 배제되었을 뿐 부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한나절을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듯 하던 남편은 부인을 부르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

“솔직히 말해서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인데, 내가 그 아이를 만나려면 밤중에 집을 비우면서 왔다갔다해야 하고 화대를 주어야 하니 돈도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실은 이것을 그 아이에게 년지시 귀뜸해 봤더니 개도 싫은 눈치가 아닌 듯 하대. 그 술집 주인한테 한 삼 백 만 원만 넘겨주면 그 아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데 문제가 없는 모양이야. 그래, 당신이 장사할 때 우리 아이를 좀 보라고 해도 좋고, 돈 들여서 사람 데려와 써야 할 판에 그 아이가 온다면 더 좋지 않겠나?”

부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꼭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하더니 그 다음 주변에 안개가 짙게 깔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기까지가 부인이 기억하고 있는 전부였다.

상놈이 돈을 벌어서 ‘양반 자격증’을 사면 점잖은 자리에 가서 얼떨결에 밥상을 걸어찬다. 혼자 있을 때 열심히 책상다리를 연습하지만 눈 깜박하는 사이에 원래의 천박함으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이 부부의 문제는 부인이 심리적 충격 후 갑작스레 실성함으로써 남편을 놀라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멍침지 남편’의 음흉한 계략에도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끝이 났다. 적어도 의견 상으로는 그랬다. 남편은 “다시는 그런 못 된 짓 하지 않겠다”며 담당 의사가 보는 앞에서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아직도 한 집안에 두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복 많은(?) 멍침지들이 꽤 있다.